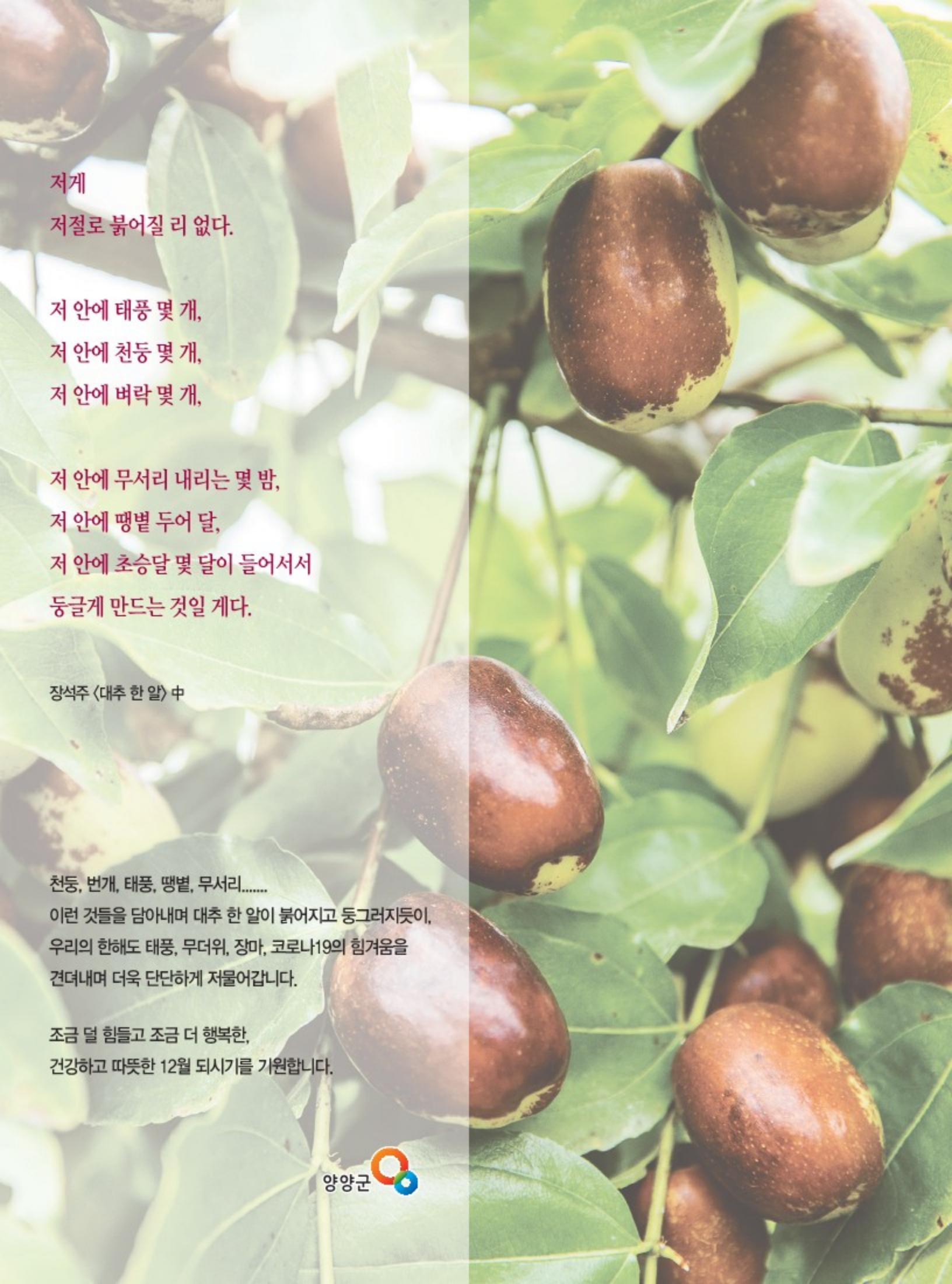


양양소식

2020. 12. Vol. 307

기획특집_가가호호에 웃음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양양군 복지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땅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장석주 <대추 한 알> 中

천둥, 번개, 태풍, 땅볕, 무서리.....

이런 것들을 담아내며 대추 한 알이 붉어지고 둥그러지듯이,

우리의 한해도 태풍, 무더위, 장마, 코로나19의 힘겨움을

견뎌내며 더욱 단단하게 저물어갑니다.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더 행복한,

건강하고 따뜻한 12월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양양소식

Vol. 307

CONTENTS

COVER STORY



희망양양

- 04 기획특집_ 가가호호에 웃음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양양군 복지과」
- 08 이슈앤플_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추교춘 어르신
- 11 마을가는 길_ 서면 공수전리
- 14 맛있는 양양여행_ 양양의 가양주 문화와 통자 막걸리에 대한 소회(所懷)

의기양양

- 16 YANGYANG NEWS
- 19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1976년 12월 20일 양양군 종합청사 준공
- 20 의정소식_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양양 서면 수리에 도적사(道寂寺)가 있었다



열린양양

-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소식 · 307호

| 발행일 2020년 12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는 PC와 모바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ssugi0129@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가가호호에 웃음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양양군 복지과」

올해 연말은 마음이 무겁다. 사람들과 어울려 한 해의 수고를 달래고, 다 가오는 새해를 축하할 기회를 코로나19에 빼앗긴 탓이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딘가에 나의 행복을 바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그렇게 사람에게 힘이 되는 법이다.

양양군 복지과는 1년 365일 양양 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복지과 사람들의 활약상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12월에 더 빛나고 따뜻하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드림청소년 팀은 아동보호 정책 추진,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지역 내 청소년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참여활동, 자원봉사 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감염확산에 따라 그동안 대면 서비스로 진

행되던 드림스타트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주 1회 이상 유선 통화로 아동의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가정 내 생활시간이 많아진 아동들을 위해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 행동 등 아동발달 지원 물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드림청소년 팀의 2020년 가장 큰 이슈는 '20년 만에 개편된 아동보호체계'이다. 지난 10월부터 지자체가 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양양군 역시 아동 학대 조사 전담 인력을 빠르게 확보하였으며, 향후 아동학대 예방 업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 팀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양성평등기금 운영, 성희롱방지 및 성·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며 지역 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의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역량강화와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창업상담사를 배치해 창업 지원 분야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평생교육의 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성가족 팀은 지역 내 여성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들도 전개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생활 안정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양양군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이미 오래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양양군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노인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팀은 노인사회 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전한 실버문화 정착과 행복한 노후 생활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어르신 1,3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계기를 마련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보람을 함께 느끼고 있어 지역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노인 인구 비율과 함께 장애인구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로, 10월 말 기준 양양군내 장애인구 비율은 8.3%(약 2,321명)로 다소 높은 편이다. 장애인 복지팀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장애인 편의 증진, 장애인 바우처 사업추진 등 일반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미 있는 한 해가

취약계층 발굴에 힘써 복지사각지대 없는 양양 만들기

지난 4,5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600여 세대 2,010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생활지원금 9억 590만 원이 상품권으로 차등 지급되면서 복지과 통합조사관리 팀은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 통합조사관리 팀은 모든 사회 보장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서비스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고, 이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통합조사관리 팀의 역할이다. 하지만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요소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례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 팀이 전담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통합조사관리 팀을 비롯한 타 부서와의 정보 교류, 주변 지인들의 제보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발



되었다. 이로써 가족의 보호 속에서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던 발달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노인복지 팀과 장애인복지 팀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준다. 그들이 외부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도우며, 어엿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굴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감소가 있다고 판단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에 대한 대책도 강구 중이다. 복지 서비스신청을 위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고자 직접 마을을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은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매년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가 일자리 상담, 이동세탁실 운영, 방문건강 등 복지상담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통합조사관리 팀과 희망복지지원 팀은 부서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며 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촘촘한 검증을 통해 부정 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양양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기반 조성

복지과의 전반적인 전반적인 총괄을 맡고 있는 복지기획 팀은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폭넓은 계층의 복지 지원에 힘쓰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을 위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자활참여자들의 삶의 활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양양군 내 자활기업은 3곳이 있는데, 자활기업 중 청소·방역업체인 '늘푸른환경'은 이번 코로나19에 지역 방역에 앞장섰고, 자활사업단 중 도시락사업단에서는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했다. 또한, 양양자활센터는 신문지를 재활용해 만든 에코백을 무료 배포함으로써 지역의 환경보호에 일조하였으며, 이는 타 도시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니 인터뷰_양양군 복지과 이애숙 과장

“복지과 7개 팀 52명의 직원은 유아부터 노인층까지 양양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그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슈퍼비전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짧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사로 인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한 고위 공무원이 없는 현실에서 어떤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선배

들의 슈퍼비전이 없는 채, 대학 혹은 일부 자격취득만을 위해 배운 짧은 학문적 지식만 가지고 여러 클라이언트를 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력은 쌓여가지만 예전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느껴진다.

이에 보다 많은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슈퍼비전의 역할을 잘 감당토록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업무가 갖는 이면의 위험적 요소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일부 폭력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위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다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인권의 보호 등을 포함한다.

개인을 존중하고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좋은 조직이란 더욱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진정성을 갖고 클라이언트를 잘 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늘 받기만 했는데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강현면 둔전리 추교춘 어르신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홀로 지내는 노인들은 안 그래도 외롭고 힘든데다, 도움의 손길도 적어서 팍팍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웃의 정을 나누는 일도 쉽지 않은 요즘, 나는 충분하니 같이 나누자며 호박 고추 등 채소도 나누고, 동전을 모아서는 선뜻 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늘 받기만 해서 조금의 여윳돈이 생기면 나누자고 내놓는 그 마음 씀씀이가 크고 따뜻한 추교춘 어르신을 만납니다.

방 한 칸의 온기로도 충분하다

혼자 지내는 방 한 칸이 전부여서 선뜻 낯선 손님들을 들이기에 쑥스러워하는 추교준 어르신 댁을 찾았다. 기운이 없다며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추교준 어르신은 별일도 아닌데 찾아왔다며 말을 아꼈다. 대단치 않다, 대단치 않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중에도 가장 크게 와닿는 말이 있다.

“나는 늘 받기만 했어요. 늘 받기만 해서 고마워서, 내가 쓰고 남는 것은 나눠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스님한테 드렸어요”

올해 들어 낙산사에서 운영하는 낙산 노인복지센터에 두 번이나 기부를 한 추교준 어르신은 센터에서 늘 어르신들을 챙겨주는 것이 고마웠다고 한다. 낙산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난 7월에도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외출을 못하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위로하고자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는데, 이러한 것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진 것을 조금 복지센터에 내놓은 것뿐이라며 받은 거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고 했다.

**“나는 늘 받기만 했어요. 늘 받기만 해서 고마워서.
내가 쓰고 남는 것은 나눠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스님한테 드렸어요”**

나누는 즐거움이 이렇게 크네요

둔전리에서 나고 자란 추교준 어르신은 해방 전 해인 1944년생으로 올해 77세다. 19살 되던 해 속초로 가서 40년간 일을 하고 살다가, 고향에 돌아온 지 이제 10여년.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이제는 쉬면서 집 앞 텃밭을 가꾸며 혼자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 작은 밭을 알뜰히 가꾸어서 채소 등을 수확하면 혼자 먹는 것 외에 대부분은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재미가 이렇게 행복한 줄 이제야 알았다면 웃음 짓는다.

제다가 올해만 해도 100여 만 원을 낙산사에 전했다. 큰돈이 생



길 일이 없지만, 동전을 오랫동안 모으고, 올 6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비로 받은 돈 가운데 병원비로 쓰고 남은 돈을 낙산사에 기부한 것이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지만, 병원비라고 해야 천 원 정도이니 돈 쓸 일이 없다면서 선뜻 기부했다.

병원 가는 날이면 배낭에 농사지은 호박 고추 오이 등을 지고 가서 만나는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때로는 점심도 얻어먹으니 참으로 즐겁다고 한다.

고향에 돌아온 지 이제 10여 년, 나누는 삶이 이처럼 즐거운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며 조용조용 몇 마디 하신다. 그러고서는 손님 대접을 해야 한다며 직접 캔 약초 달인 물을 한 잔씩 주셨다. 약초 달인 물은 첫 맛은 썼지만 마실수록 구수하고 달았고 몸에 좋을 것 같았다. 추교춘 어르신과의 만남도 약초차처럼 대단한 수식어 없이 담담하고 구수하고 좋았다.



혼자지만 돌봐주는 것이 늘 감사하지요

낙산 노인복지센터는 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집집마다 방문해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살핀다. 게다가 1년에 네 번씩 떡국 행사나 삼계탕 등을 대접하는데 홀로 지내는 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추교춘 어르신도 늘 낙산 노인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언젠가 이 고마움을 갚을 날이 있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아끼고 절약하고 모은 돈을 선뜻 기부한 것이다.

낙산 노인센터의 덕원스님의 말을 빌면, 추교춘 어르신은 방문할 때마다 늘 고마워하며, 무엇이든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 대단하시다고 한다. 홀로 어렵게 살면서 나누기란 쉽지 않은데 받음에 감사하고 나눔도 기꺼이 하시니 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한다.



기부를 했다고 인터뷰하려니, 자랑할 일이 아니라며 조용조용 몇 마디 하신다. 그러고서는 손님 대접을 해야 한다며 직접 캔 약초 달인 물을 한 잔씩 주셨다. 약초 달인 물은 첫 맛은 썼지만 마실수록 구수하고 달았고 몸에 좋을 것 같았다. 추교춘 어르신과의 만남도 약초차처럼 대단한 수식어 없이 담담하고 구수하고 좋았다.

〈글·사진: 편집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서면 공수전리

자두꽃이 하얗게 피고 지는 마을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1호
편견없이 하나 되는 멋진 주민들

그 마을에는 봄마다 하얀 자두꽃이 흐드러지게 핀다고 했다. 한국전쟁으로 마을 일대가 황폐화가 되었을 때도, 어딘가에 뿌리를 내린 재래종 자두나무가 강한 생명력으로 씨를 퍼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 마을에 꽃 대궐을 선물했다.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가 '자두마을'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이다. 공수전리의 자두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무너진 삶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자연이 준 선물이 아니었을까?

화수분처럼 쓸어지는 이 마을의 매력

공수전리는 조선 시대 때 관청의 경비 마련을 위해 관가에서 정해놓고 경작하던 공수전(公須田)이 있었던 마을이다. 200여 년 전 한 지관은 마을의 형국이 귀인 공자를 닮았다고 했다는데, 수려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정갈하게 단장된 마을 곳곳의 풍경을 보니 그 유래에 꼭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공수전리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자두마을'이 있다.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재래종 자두나무가 유독 많았는데, 집집마다 자두나무를 키웠고, 과실이 열리면 장에 나가 팔기도 했다고 한다. 지게나 우마차로 물건을 실어 나르던 시절의 이야기다. 지금은 자두를 판매하기보다는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고, 마을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베풀기 위해 자두나무를 가꾼다. 양양군의 지원을 받아 길가

에 심은 천여 그루의 자두나무는 봄이면 화사한 꽃 풍경을, 여름이면 맛있는 자두를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이 마을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공수전계곡과 용소계곡을 끼고 있는 공수전리는 오래전부터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피서지였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따라서 왔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녀의 손을 잡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세대를 이어서 꾸준히 찾아오게 되는 공수전리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꾸밈없이 순수한 자연의 정취와 편안하고 평화로운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주민 모두가 수고해 준 덕분이리라.

양양 최고의 휴양지가 되기 위해

공수전리는 1985년부터 야영장 운영을 통해 소득 창출을 꾀하고 있다. 양양군 최초의 마을관리 휴양지이자, 산촌생태마을과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공수전리는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놀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휴양지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캠핑용 데크를 설치하면서 캠핑족의 발길도 심심치 않게 이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여름철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을 통해 거둔 소득은 주민들에게 배분하고, 일부는 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 19년 동안 마을 일을 맡아 온 신원선 이장은 향후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있

어 남다른 포부를 갖고 있다.

"우리 마을은 작년부터 마을관리 휴양지 명품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마을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이장이 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신원선 이장은 마을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민 간의 단합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주민끼리 화합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생각이다. 주민들이 의기투합해 마을의 발전을 이끈 사례가 있다. 1970년대 마을 내 젊은층을 중심





으로 개인 땅을 기증해서 마을길을 새로 정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자신의 땅에 애착이 강했던 부모와 마을의 미래를 내다본 자식 간에 의견 차이가 심했지만, 마침내 마을에 새 길이 나고 1980

년대에 포장공사를 거치면서 마을은 조금씩 활력을 더해갔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기에 공수전리 주민들에게 화합은 중요한 미덕일 수밖에 없다.

멋진 사람 옆에 또 멋진 사람

현재 공수전리에는 현재 57가구 12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19가구가 귀촌인이다. 처음에는 정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심했지만, 주민 간의 단합을 중시하는 신원선 이장은 외지인을 마을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조현근 사무국장은 귀촌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을 사업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았다.

“여기에는 외가댁이 있어서 어릴 적에는 방학 때만 되면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귀농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릴 때 놀던 이 마을이 떠오르더라고요. 외지 사람이 낯선 환경에 정불이기가 힘든데, 이상님이 선뜻 받아주셔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네요.”

조현근 사무국장은 마을관리 휴양지 활성화를 위해 고령화되어가는 마을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을 갖추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무료 채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과의 소통 창구를 확보하는 등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편리한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상배 노인회장은 이주민들을 포용하는 신원선 이장과 외지에서 들어와 터를 잡아가는 조현근 사무국장을 ‘멋진 사람들’이라고



칭찬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상배 노인회장 역시 활달한 성격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멋진 어르신’이다. 그는 마을 주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노인회 회원들을 이끌며 마을 정화 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틈틈이 사진을 찍어 마을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도 열심이다.

“2020년을 ‘도전의 해’로 목표를 정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인회 회원들은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면서 활기차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단합도 잘되는 우리 노인회는 정말 끝내줍니다.”

하나의 풍경을 계속 바라본 사람은 그 풍경을 닦아간다. 맑고 깨끗한 자연 풍광을 바라보며 살아온 공수전리 주민들이 밝고 넉넉한 품성을 지닌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멋진 주민 옆에 멋진 주민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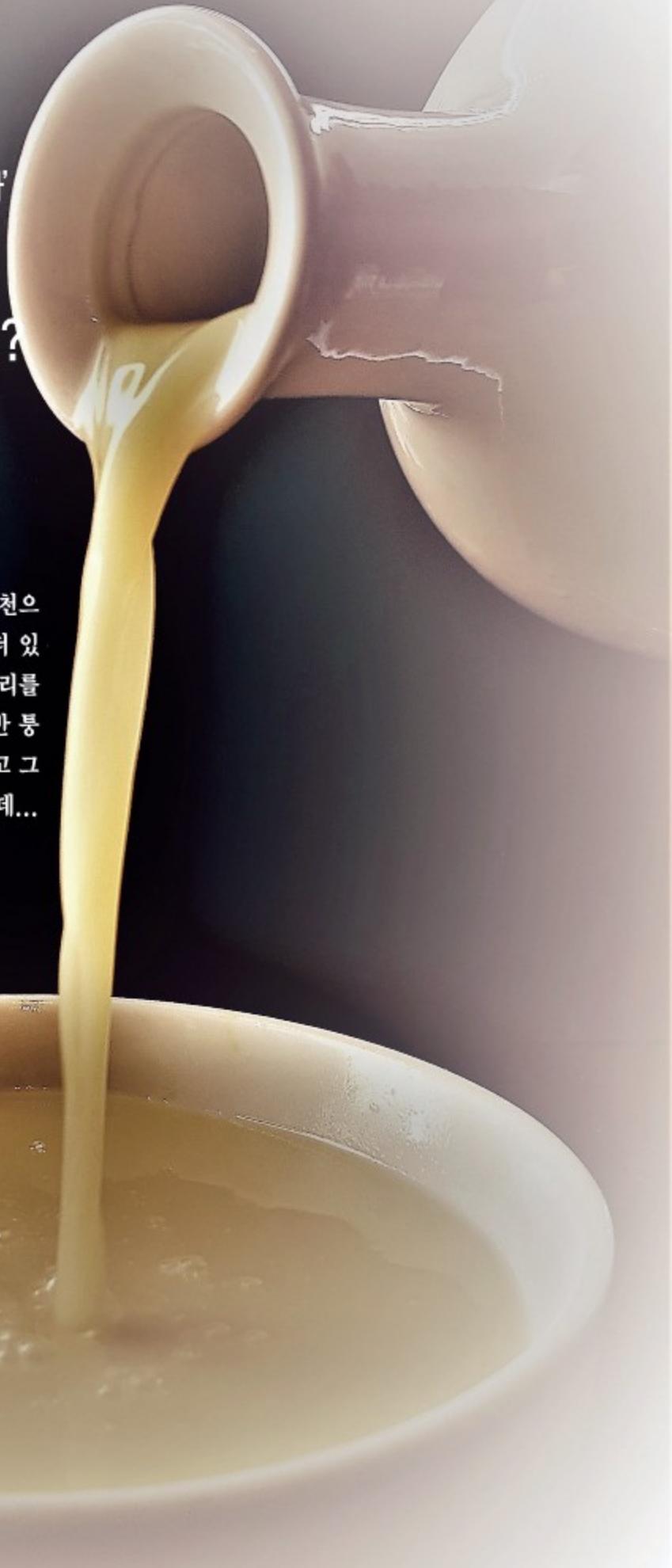
겨울의 문턱에서 공수전리의 봄을 그려본다. 소담스럽게 편 자두꽃이 코로나19로 지친 모두의 일상에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봄이 오길 기다린다.

〈글·사진 : 편집부〉

잊고 있었던 양양 막걸리의 상징적 언어! '통자'

양양의 가양주 문화와 통자 막걸리에 대한 소회(所懷)?

"예전에는 모내기를 다 끝내놓고 동네 사람들끼리 남대천으로 추렴하러 다녔다구... 술이라고 해봐야 막걸리밖에 더 있었나... 요새말로 말통인데... 그때는 '통자'에다가 막걸리를 받아 왔다구... 사람이 많으면 한 통자도 받고, 적으면 반 통자씩 받아와서는 뚜거리탕 끓여서 해 빠질 때 까지 마시고 그랬어... 그때는 막걸리가 걸죽한 게 얼마나 진땡이였는데... 맛있었어... 지금은 그런 맛이 나나... 안 나지...".



종종 빠근해진 양양 사람들의 고단한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시금털털한 뒤풀에는 풍류의 도리(道理)까지 알게 해주던
양양 막걸리에 대한 손양면 토박이 어른신의 회상이다.

맛도 빛깔도 취기도 달랐던 양양의 가양주 문화

'통자'소리만 들어도 참 반갑게 생각나는 양양 막걸리이다. 지금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든 막걸리 병이 없었던 당시, 둥그스름하게 생긴 말통을 양양에서는 '통자'라고 하였는데 이 통에 담아 먹던 양양 막걸리의 또 다른 이름이 '통자 막걸리'었고 '말술'이었다. 유리 '고뿌' 잔에 졸졸거리며, 타는 속을 더 태우며 마시던 소주보다는 통자에서 콤콤대며 쏟아지는 소리까지 대접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 마시던 양양 '통자 막걸리'가 뭐라고 아직도 선명한 기억이다. 지금도 그때처럼 진뱅이 양양 '통자 막걸리'를 한 대접 시원하게 들이킬 수만 있다면 바다를 안고, 땅을 품고 사는 양양 사람들에게는 가양주(家釀酒) 같은 양양의 토속주(土俗酒)가 되었을 일이다. 사부작사부작 취기라도 오르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을 것처럼 올컷 치밀어 오르던 술타령도 해학이였고, 풍자의 육담(肉談)꺼리었던 양양 막걸리였다. 훗날 들어 맥(脈)이 끊긴 양양 막걸리에 대한 애상과 애환은 일제강점기 이전과 이후의 시대적 기억들뿐이다. 일제강점기 이전 만 해도, 양양에는 집집마다 술맛을 자랑하던 가양주(家釀酒)가 있었다. 특히 해안가 마을보다는 곡류 농사가 많은 산마을이나 농가에서 가양주 문화가 풍속처럼 전해지고 있었다. 서면 갈천리의 경우, 귀한 쌀을 대신하여 족



쌀을 쪄서 만든 족쌀 막걸리와 샛노란 빛깔의 옥수수 막걸리도 있었고, 더러는 마을에 따라 감자나 고구마, 메밀쌀을 이용하여 빚은 막걸리뿐만 아니라 양양의 향토 특주였던 '설악주'를 빚기도 했다. 이중에서 감자 막걸리는 1980년대 쯤 까지 오색주전골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강릉 성산 막걸리와 쌍벽雙璧이었던 양양 막걸리

이렇게 집집마다 빚던 가양주가 일제강점기 때는 곡류 수탈을 목적으로 양조허가제로 바뀌게 되고 밀주(密酒)로 단속되면서, 결국 양양 관내에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막걸리와 소주 양조장만 20여 개소가 남게 되면서 맛도 빛깔도 취기도 달랐던 양양 만의 가양주문화는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허가를 받은 양조장들은 읍 면 소재지마다 있었다. 양양을 양양 양조장, 손양면 왕도 양조장, 서면 양조장, 강현면 물치 양조장, 속초읍 석천양조장 등 이였다. 이중에 석천양조장은 양양에 유일하게 있던 소주 양조장으로 '낙산소주(落山燒酒)'라는 이름을 붙인 소주를 만들었는데 맛이 좋다는 뜻의 '우량소주'라는 말로 신문광고 까지 하였다. 간혹 막걸리 배달을 가다가 버스

와 부딪쳤다는 사고 소식도 신문에 나기도 할 만큼, 당시의 양양 막걸리는 잘 팔렸고 맛도 좋아 강릉의 성산막걸리와 용호상박(龍虎相搏)할 만큼 영동지역에서는 최고의 막걸리 맛을 자랑하였다. 이후 바람 불 듯 흐는 세월에 하나 둘씩 양양의 양조장들이 문을 닫게 되는데, 그 이유가 참으로 해망(駭妄)하기도 하다. 신식 농기계로 농사를 짓는 시간이 빨라지면서 새참먹을 일이 없으니 막걸리보다는 소주 한 고루로 간단하게 때우게 되었고, 막걸리 지역제한제가 풀리게 되면서 다른 지역의 막걸리가 양양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막걸리 집들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였다.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때 양양고등학교 앞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양양 양조장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양양 막걸리의 상징적 언어였던 '통자'란 말도 사라지게 되었다. <글·사진 : 김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양양군, 시정연설 통해 2021년도 군정 운영 방향 밝혀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 20일 제252회 양양군 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먼저 “올해는 코로나19와 태풍 피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 강릉~제진간 동해북부 선 건설 확정 ▲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마무리(시장 타워 주차장 완공, 어화원, 수상레포츠 체험장 조성 등) ▲ 오색케이블카 정면돌파 ▲ 관광객 집중 등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고 성장한 한 해였다”며 “내년도는 ‘코로나 속에서의 활력’을 목표로 민선7기 급변한 양양의 여건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역점시책으로 ▲ 도시 확장 및 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대표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 활력 ▲ 지역 균형 활력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 ▲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농산어촌 활력 ▲ 안전 강회(재난재해 및 방역 등)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해갈 방침이다.

겨울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호통 보온팩 보급

겨울에 발생하는 상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한파피해 Zero화 사업일환으로 겨울철 상수도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을 구입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9,300개를 꾸준히 보급하여 왔다.

지원대상 가구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미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가구로 수도계량기 25mm 이상과 15년 이후 신설된 가구는 제외대상이다. 동파 방지팩은 스티로폼 조각과 방습제를 비닐팩에 담아 밀봉한 것으로 수도계량기 위에 덮은 채 보호통 뚜껑을 닫아주기만 하면 되며,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공기 흐름을 차단해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아주게 된다. 수도계량기 동파방지팩의 무상 보급으로 취약계층의 동절기동파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양양군 연예인 마을 ‘땅만 빌리지’ 11월 3일 첫 방영

양양군 촬영 종인 ‘땅만 빌리지’가 11월 3일 첫 방영으로 모습을 드리냈다.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의 ‘땅만 빌리지’는 서피비치와 하조대로 유명한 양양 현북면 중광정리에서 2022년까지 프로그램 촬영장으로 사용 예정이며, 촬장을 맡은 김병만과 더불어 김구라, 윤두준, 유인영 등이 출연해 집을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자급자족하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11월 3일 KBS2에서 밤 9시 30분에 첫 방영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밤 같은 시간대에 방영된다.

촬영지인 현북면 중광정리는 긴 백사장과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이국적인 풍광이 펼쳐진 서핑 전용 해변인 서피비치와 기암절벽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하조대 등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연중 많은 관광객들과 방송사 프로그램들의 배경화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경비 83만원 지급



2020년도 모범음식점 35개소 지정

양양군은 식품위생과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음식점 35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양양군보건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해 음식 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심사단으로 구성해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관내 음식점 35개소를 선정했다.

2020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35개 업소는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와 위생·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재지정 32개소와 신규 3개소로 구성된 해당 업소에는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양양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리터 10매),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모범음식점은 매년 10월 정기 재심사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기 때문에 위생 수준 및 친절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2020년도 모범음식점 현황 www.yangyang.go.kr

양양군은 올해 교육경비 및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등 26개 사업에 모두 17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지원비가 약 83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학교별 대응투자 사업으로 교육 지원과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교육정책보다 1년 앞서 시행한 무상교육과 무상교복 지원도 계속된다. 올해는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고교 1학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며 교복구입비는 도-지자체-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중·고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지원한다.

특히 교육예산 편성 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근거로 보조기준액을 지방세액의 5%,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5%를 반영한데 반해 양양군 최근 3년간 군세수입액의 10%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예산 편성에 대한 의지와 가용재원 폭이 넓다.

이 밖에도 올해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의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집 앞으로 배송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기도 했다.



양양 (주)매홍엘엔에프, 제2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우수기업 선정

양양군 기업 (주)매홍엘엔에프(대표 장형운)가 제2회 강원도 일자리대상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주)매홍엘엔에프는 솔뚜껑누룽지와 고구마말랭이 등의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과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기여하여 수상하게 되었다.

제2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환경개선자금 5천만원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계획이다.





양양군, 제2그린농공단지 입주 기업 활약 주목

양양군 제2그린농공단지가 높은 분양률을 보이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제2그린농공단지는 지난 2015년 기준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인근 10만 3,300㎡ 부지에 조성되었으며, 전체 17필지 중 15필지가 분양되어 이중 13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2개 기업은 공사 진행 중이다.

입주한 기업은 친환경 농공단지에 걸맞은 식·음료품 9개 기업, 목재·금속 가공 제품 3개 기업, 전기 장비 제조업 1개 기업이며, 106명이 고용되어 연간 400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양양군 농수산 식품 수출협회는 그동안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올해 온·오프라인 3억여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향후 해외수출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해외판촉 행사를 통한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해 맞춤형 수출 주도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봉침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증거조사 실시

존폐 기로에 놓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고비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증거조사가 11월 4일 ~ 5일 양일간 실시됐다.

양양군이 지난 2019년 12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혐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지 330여일 만이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는 1일차인 11월 4일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팀방원에서 당사자 의견청취가 진행되었고, 2일차인 11월 5일은 사업노선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졌고,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현장 증거조사 이후 구술심리 절차를 거쳐 최종 재결하여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다.

양양군 전원마을 개발용지 추가분양 추진

강현면 정암지구 62필지와 현북면 중광정지구 55필지로 추가분양이 추진된다.

정암지구는 강현면 정암리 336-1번지 일대 84,510㎡, 67필지 규모로 지난해 6월 조성공사가 착수 되어, 현재 공정률이 65%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분양 방식은 온비드(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일반경쟁입찰(최고가 낙찰)로 조성용지를 매각하게 되며 1필지별 규모는 541~786㎡이고, 분양 예정가는 174,743,000~287,274,000 원 수준이며, 입찰신청은 1세대 1필지 원칙이다. 분양 일정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및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 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북면 중광정지구 이번 분양 용지는 잔여 55필지로 1필지별 분양가는 평균 단가가 220,000/㎡ 수준으로 최저 90,403,200원(449.9㎡)이고 최고 174,014,000원(706.8㎡)이다.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1976년 12월 20일 양양군 종합청사 준공



군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해 온 양양군 청사가
12월 20일 45돌을 맞습니다.

준공 당시 2층이었던 건물은 3층이 되었고,
지나온 세월만큼 청사 주변으로 증축건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양군민과 많은 공무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
45년 동안 꿈과 희망, 열정, 애환을 함께 나누며 동고동락 해온 곳.
이곳은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입니다.

군민을 위한 편안한 안식처이자, 따뜻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양양군은 늘 군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규칙안 20건 등을 다룸으로써 숨 가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례회 첫 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의성 의장의 개회사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양양군수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제철, 간사 박봉균)에서 군 실과소단·읍면 총 26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각종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행정 전반에 대하여 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며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12월 1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철, 간사 고제철)에서 의원발의 된 조례안 7건 및 규칙안 1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군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7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 간사 김귀선)에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적정성, 경제성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예산 심의를 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뒤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김의성 의장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제252회 정례회를 통해 군민들이 의회에 부여해주신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며, 군민과 함께 하는 양양군의회로서 동료의원들과 더욱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양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제5회 강원 의정봉사상 수상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양양군의회 이종석 부의장과 김우섭 의원에게 제5회 강원 의정봉사상을 수여하였다.
두 의원은 평소 열정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이종석 부의장과 김우섭 의원은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께 보답하고, 지역발전에 한신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양양 서면 수리에 도적사(道寂寺)가 있었다

1. 도적사지(道寂寺址)의 현황

도적사는 양양군 서면 수리 절골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지의 일대가 경작지와 묘지로 조성되어 있다. 사지는 좌우에 능선이 둘러싸고 있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수로가 조성되어 있어 지형적으로 아득한 자리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지의 남쪽 지역은 단을 이루고 있으며 조성된 경작지가 논으로 활용되고 있고, 북쪽 지역은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 잡목들이 자리하고 있고 사지의 북쪽 능선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2개의 묘지가 좌우로 조성되어 있다.

주민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봉분이 있는 자리에 원래에는 작은 규모의 법당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데 주변에는 많은 량의 기와편이 산재되어 있다.

사지는 어느 시기에 경작지로 조성되면서 원래의 모습이 많이 변형된 상태이고, 사지의 지표상에는 건축부재로 활용된 석재와 기와 편과 자기편들이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어 비교적 큰 규모의 사찰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사지의 좌우 능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많은 량의 기와 편과 자기편이 확인되고 있어 경작지를 조성하면서 출토된 유물들이 다양 폐기 또는 유실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적사지 위치도〉



2. 도적사의 역사

현재 양양의 도적사에 대한 연혁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해주는 기록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 도적사의 위치와 폐사 여부를 알려주는 기록이 전하는데, 조선 전기의 대표적 지리지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도적사는 정족산(鼎足山) 자락에 있으며, 정족산은 양양도호부에서 서남쪽으로 40리에 떨어진 지점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杞園集』 “기원선생연보”에 의하면 어유봉(魚有鳳: 1672~1744)이 1692년 가을 처남이었던 홍유인(洪有人: 1667~1694)과 함께 도적사에서 글을 읽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17세기 중후반경까지 도적사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輿地圖書』에는 도적사가 정족산 자락에 있었는데 폐사되었다고 기록되어있고, 『峴山誌』에도 부 남쪽 15리 수동(水洞)의 북쪽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기록하면서, 숙종16년(1690) 경신에 화적(火賊)에 의해 겁탈 당한 바가 있어 중들이 모두 슬퍼하여 흩어졌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조선 영조(재위 1724~1776) 때의 유학자인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찬술한 『伽藍考』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1799년에 편찬된 『梵宇攷』에는 도적사가 정족산에 있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정족산 자락에 있었던 도적사는 창건 이후 사찰로써의 기능을 유지되다가 조선 후기인 17세기 말이나 18세기에 들어와 폐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선시대의 중요 지리지에 도적사가 현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양지역에서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3. 도적사지 출토 유물

도적사의 연혁을 알려주는 다수의 유물들이 수습되었는데, 고려시대에 건립된 청석탑재(青石塔材)를 비롯하여 건물에 활용되었던 석재, 기와편,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고,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 편, 조선 후기의 기와편과 백자편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부도(浮屠) 부재로 보이는 6각형 대석과 옥개석, 확석 등이 수습되었는데, 이 석조 유물들은 청석탑 상층부와 함께 현재 양양문화원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도적사와 관련된 기록과 사지에 유존(有存)되고 있는 유적 유물로 보아 도적사는 불교가 크게 성행했던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꾸준하게 법등이 밝혀지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억불승유(抑佛崇儒) 정책의 기조로 불교계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도적사는 폐사되지 않고 법등을 이어갔다. 그러나 도적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17세기 말이나 18세기 대에 들어와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 도적사와 명주사 표기 고지도 〉



도적사가 표기되어있는 대동여지도



도적사가 표기되어있는 동여도

〈 도적사지 출토 유물 〉



범어(梵語고대인도 표준문장어)가 새겨져있는 고려시대
청석탑 상층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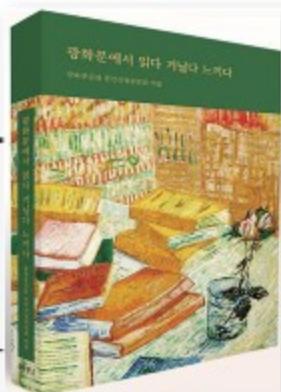


부도(浮屠) 부재(浮材)로 추정되는 육각형 대석(중간석)과 옥개석,
그리고 확석 2개

이달의 책이야기

관화 | 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회 지음
| 교보문고(2020. 10월)



지난 30년간 우리 곁에 자리한 광화문 글판에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담겨 있다

21세기 아래 광화문이 조용한 적은 없었다. 늘 바쁘게 지나치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날 때면 자연스레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지난 30년간 변함없는 마음으로 광화문 네거리에 비추는 '광화문글판'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곳을 지키고 있다. 교보생명 본사 외벽에 내걸린 광화문글판은 1991년 신용호 창립자의 제안으로 시작돼 2020년 서른 살이 되었다. 30자 안팎의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는 삭막한 도시 풍경 속에서도 잠시나마 숨을 돌리는 여유를 갖게 해주었다. 봄·여름·가을·겨울마다 새 웃으로 갈아입기에 꽃이 피고 나뭇잎이 무성해지고 단풍이 지고 입김이나면 계절이 바뀐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광화문글판이 바뀌면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실감할 정도다.

1991년 1월 '우리 모두 함께 뭉쳐 경제 활력 다시 찾자'라는 첫 문 안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라는 <풀꽃>글판.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노랫말을 담은 특별편까지 광화문글판의 모든 여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순간이, 희망을 부르는 노래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의지가 모두 광화문글판에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부른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의 인생을 아름다운 한 줄의 시처럼 노래하는 세상이 바로 광화문글판이 꿈꾸는 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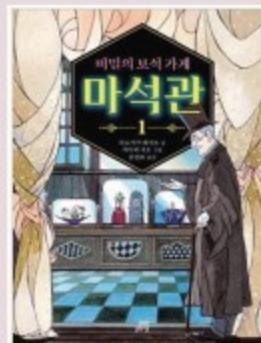
◆ 책 속 한 구절 ◆

▣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선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_181쪽 이생진 <벌레 먹은 나뭇잎> 中

이달의 추천 신간도서

비밀의 보석 가게 마석관. 1

히로시마 레이코 지음 | 김정화 옮김
| 길벗스쿨 (2020. 11월)



"화려한 겉모습보다 더욱 위대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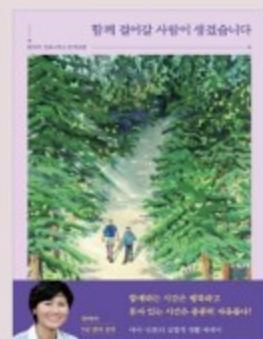
내면에 감춰진 힘!"

보석의 저주부터 운명의 반전까지 한없이 빠져드는 보석들의 천일야화

'마석관' 주인이 보석들의 힘과 그 힘으로 인해 벌어지는 여덟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정 구슬에 얹힌 배신과 응보, 루비 반지에 저주를 퍼부은 여인의 비극, 자기를 보살피 준 소녀에 대한 고양이의 보은, 문스톤 반지 때문에 생긴 자매의 오해, 위석으로 궁지를 드높인 노예의 용기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그득하다. 보석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들이 차례차례 이어지면서, 베일에 싸인 '마석관'과 그 주인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비야, 안토니우스 반 주트펜 지음 |
푸른숲(2020. 11월)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자유롭다! 1년에 3:3:6 타임,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자신들만의 인생 공식을 만들어가는 자발적 장거리 부부의 실험적 생활 에세이

도전과 활력의 아이콘, 그간 여행기, 긴급구호 현장보고서, 유학기 등 아홉 권의 책을 통해 생생한 삶의 현장과 진솔한 내면의 이야기를 전해온 한비야 작가가 5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왔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는 한비야와 남편 안토니우스 반 주트펜이 함께 쓴 책으로, 결혼 3년 차를 맞이한 부부의 실험적 생활 이야기다. 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최적화된 생활 방식을 찾아가며 만든 기준과 얻은 값진 경험들을 독자들과 나눈다.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영화관사정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상영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angyang@scinema.org ☎ 033-673-7050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안내

- 모집분야 : 공익활동(환경지킴이,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등)
- 모집인원 : 1,275명
- 접수기간 : 2020. 12. 1.(화) ~ 12. 16.(수)(기간 중 12일간)
- 신청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령자 중 참여희망자(단, 부부가구는 1명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참여신청서 등 기타서류는 현장 비치)
- 접수일정 및 장소

읍·면	접수일정	해당마을	장소	시 간
양양읍	12.01.(화)	군행리, 성내리, 구교리, 연창리, 송암리, 청곡리, 포월리	양양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	13:30 ~ 17:00
	12.02.(수)	조산리, 임천리, 기정리, 강곡리, 화일리, 거마리, 사천리		
	12.03.(목)	내곡리, 서문리, 남문리, 월리		
강현면	12.04.(금)	정암리, 물진리, 강선리, 하복리, 중복리, 상복리, 적은리, 맹죽리, 광석리, 달리	강현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13:30 ~ 17:00
	12.07.(월)	회룡리, 장산리, 석교리, 둔전리, 물길리, 사고리, 금동리, 칭교리, 전진리, 응호리, 간곡리, 주청리		
현남면	12.08.(화)	인구리, 북봉리, 동산리, 두장시변리, 죽정자리, 광진리, 포매리, 견물리	현남면 복지회관	13:30 ~ 17:00
	12.09.(수)	상월천리, 하월천리, 입암리, 입호정리, 원포리, 자경리, 남애리		
현북면	12.10.(목)	하광정리, 기사문리, 잔교리, 대치리, 달곡리, 중광정리, 상광정리	현북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13:30 ~ 17:00
	12.11.(금)	명지리, 여성전리, 법수치리, 면옥치리, 원일전리, 장리, 도리		
서면	12.14.(월)	서면	서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손양면	12.15.(화)	손양면	손양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추가 접수	12.16.(수)	6개 읍면 미신청 참여자	노인회관 1층 사무실	

※ 1. 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 관련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 못했을 경우 타 읍/면에서도 신청 가능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불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동일인 1년간 지급한도 100만원)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불법행위별	과태료 부과 (단위: 만원)	포상금 지급액 (단위: 만원)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1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	20	5
유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5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	5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 쓰레기 투기 행위자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 제출 (10일이내)
 - 첨부물 : 근거사진 및 동영상
 - 제출처 : 양양군청 환경과(670-2131)

보훈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0년 12월 1일부터(수시)
-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래 기준 해당자

- 자급기준
 -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자
 -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④ 위의 ①~③까지 해당하는 자(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 ▣ 지급시기 : 매월 15일 ※2021년 1월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및 양양군청 복지과에 방문신청
- ▣ 제출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 문의처 : 양양군청 복지과(033-670-2294)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
2. 지원기간: 2020.10월~12월 납부분(연도내 소급)
3. 신청기간: 2021.1.10.까지
4. 신청방법
 -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3층) 방문신청
5. 제출서류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상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6. 문의처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78

양봉 및 토종별 사육농가 축산업등록 의무 안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양봉산업법)이 2019.08.27. 제정되고, 2020.08.28. 시행됨에 따라 양봉 및 토종별 사육농가는 「양봉산업법 제13조 제1항」규정에 따른 축산업등록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 등록대상 : 관내 양봉 및 토종별 사육농가
 - 양봉 : 30군 이상 의무등록, 30군 미만 자율 등록
 - 토종별 : 10군 이상 의무등록, 10군 미만 자율 등록
 - 양봉 + 토종별 : 30군 이상 의무등록, 30군 미만 자율 등록
- ▣ 등록방법 : 양봉협회 및 토종별연구회
 - 한국양봉협회 양양군지부 회원 : 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 토종별연구회 회원 : 연구회에 신청서 제출
 - 기타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산정책부서에 직접 제출
- ▣ 등록기간 : 2020년 12월 31일 한
- ▣ 등록기준
 - 사육지내 소독시설 및 장비, 약품 구비
 - 안내표지판 설치(일반인에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 및 사육 사실 안내)
 -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임차권 등 확보(임대차계약서 첨부 등)
-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토지사용승락서(임대차계약서 등)
- ▣ 문의처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산정책담당
(☎033-670-2947)

* 등록기준이하 사육농가의 경우 등록의무는 없으나, 미등록시 양봉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후순위 선정 등 제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등록기준이하라도 축산업등록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2. 지원기간: 2020.10월~12월 납부분(연도내 소급)
3. 신청기간: 2021.1.20.까지
4. 신청방법: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3층) 및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1부(근로자용 및 사업장용)
 - 공동주택 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공동주택 관련 사업장만 해당)
6. 문의처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78

정보꾸러미



희망나눔캠페인(양양군)

- ▣ 행 사 명 : 희망2021나눔캠페인(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기 간 : 2020. 12. 1. ~ 2021. 1. 31.
- ▣ 모금방법 : 읍·면 주민복지부서 이웃돕기 성금 창구,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사랑의 계좌, ARS, QR코드 등
- ▣ 성금사용 : 저소득층 개인생계 의료비 지원, 난방비지원, 사회복지 시설 프로그램 지원 등
- ▣ 문 의 : 양양군청 복지과(670-2293)

연극단원 모집

극단 "양양사람들"에서 함께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자신도 둘렀던 여러분들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아래 모집자격에 하나라도 속한다면 도전 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겁니다.

모집자격

1. 연극을 하고 싶으신 분
2. 연극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고 심지어 연극공연 조차도 본 적이 없으신 분
3. 남녀불문 나이불문이야 외국에서 돈 벌려 오신 분도 가능함
4. 연극영화과를 준비하거나 꿈이 배우인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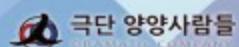
혜택

1. 원인국연극협회 회원 등록 (세면 이상 참여시)
2. 공연 참여시 개런티 지급
3. 대한민국연극제 출연자격 획득

현재 준비작

"노랑동백" : 양양에성독립지사 조학백 일대기
"이대감 망할대감" : 마당놀이

문의 : 극단 양양사람들
위치 : 양양읍 남문5길 9 양양시장 2층 214호 "문화끼끼"
전화 : 033 - 673 - 9995 (극단사무실)
010 - 2388 - 6654 (임종래)
* 전화상담은 24시간 대기중이며 항상 오디션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양양을 대한민국 최고의 연극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2020 Census
농림어업총조사

내일의 변화는
당신의 이야기로부터

농산어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1월 23일 ~ 12월 18일



통계청

119 신고!
이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문자

음성통화가 곤란한 삼화 전화 불통지역에서 119신고
전화 불통지역에서 119신고 가능

문자 입력 및 전송
사진, 동영상 첨부 가능
119신고 접수원과
119신고 접수원과

앱

터치만으로 119신고
빠르고 정확한 위치추적
PLAY STORE 접속
119 신고 접수
앱 설치

신고서비스 선택
안송버튼 클릭
119에 알림准时
119에 알림准时

영상통화

첨각장애인, 외국인에게 유용
정확한 현장상황 전달
수화 또는 신고내용을
종이에 써어 119신고 가능
영상통화로 신고
영상통화로 신고
•영상통화는 일부 장애인가족이 전송

양양소방서 ☎ 671-2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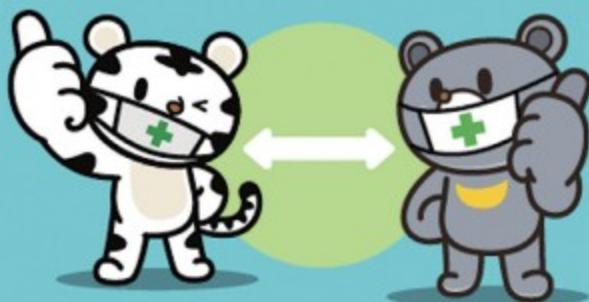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은 필수!

!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손소독은 자주자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요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수칙!



서로를 지키는 거리두기!
마음만은 가까이!



기침과 열이 나면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에 물어 보아요

! 전화 : 1339 또는 지역번호+120
또는 지역 보건소



모임과 타지역 방문은 줄여 보아요



강원도
GANGWON PROVINCE